

DuPont, 합성고무 가격담합 “타격”

DDE, 과징금 8400만달러 지급 합의 ... 특별비용 1억5000만달러 계상

DDE(DuPont Dow Elastomers)가 국제적인 합성고무 가격담합을 도모한 혐의로 8400만달러의 과징금(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따르면, DDE는 1999년 8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경쟁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판매되는 CR(Polychloroprene Rubber) 가격담합을 조장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DDE는 답변합의(Plea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의 CR 가격담합 조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lea Agreement는 국제적 가격 카르텔(Cartel)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법무부의 노력으로 제정됐는데 국제적인 가격담합은 미국 소비자 및 수요기업들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고 가혹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CR 수요는 약 3억5000만달러에 달하며 DDE는 Neoprene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DOJ)가 CR 가격담합 조사기간 중 벌금형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CR 가격담합 사건은 2004년 고무화학제품 및 NBR 등 고무관련제품 가격담합 사건에 뒤따른 것으로 2004년 고무관련제품 가격담합에는 2억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DDE는 셔먼 독점금지법(Sherman Act) 1조를 위반함으로써 최대 1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DDE는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구매 관련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에서도 합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전체 소송관련 비용이 약 1억188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uPont은 합성고무제품과 관련한 정부의 가격담합 조사 및 관련소송에 대처해 2004년 1/4분기에 1억5000만달러의 특별비용을 추가한 바 있다.

한편, DuPont은 2004년 Dow Chemical과 DDE의 반독점법 위반소송과 관련해 최대 1억5000만달러를 지원하고 초과분의 75% 이상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1월3일 Elastomers 합작기업에 대한 Dow의 지분을 87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화학저널 2005/03/21>